

불자 세상보기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걱정이다. 자식을 하나 낳아 대학공부까지 시키려면 요즘 물가로 2억 5000만원이나 필요하다니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더욱 꺼리게 됐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지속돼 왔다. 이젠 인구의 구성비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어 14%대를 향해 진행되고 있다. 14%대에 이르면 고령화를 지나 고령 사회가 된다. 이대로 30년 후면 국민연금도 고갈된다는데 누가 노인들을 부양할 것인가 걱정이 크다. 경제적 상황도 문제이지만 세대간 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전 세대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몫이 될 것이고 그 부담을 떠안은 다음 세대의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올 리 없을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사는 지혜

이미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지 오래로, 40대를 전후해 조기퇴직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또한 이들의 노동 시장으로의 재진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다. 운이 좋아 50세를 넘겨 퇴직을 한다해도 그 나이는 노인이 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 새로운 직업을 갖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정부가 오래전부터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유인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 그리고 교육에 대한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는 한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요즘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노력과 투자는 과거 10여 년 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달라져 있다. 세계 도처에 우리나라의 조기 유학생들이

산재해 있고 한집 건너 가리가 아빠들이 살고 있다. 결국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고령화의 경고등도 이미 오래전에 켜져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한 시기에 틀림없다. 나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야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당장 현실적인 경제적 상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의식수준을 갖추어야 할 때이다. 암울한 국가의 미래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식과 후손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고령화 시대를 사는 노인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인생의 말년에 젊어서부터 준비해둔 재산에 기대어 아무 일도 하

지 않고 여행이나 다니는 인생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노년의 기준도 될 수 없다. 인생의 황혼기에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과 크고 작은 일을 떠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노후설계는 경제적 준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도 일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것이다. 이젠 세상이 변해 일생 동안 한 직장에서 한번만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퇴직제와 다단계 퇴직제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다양한 일을 하며 일생을 마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는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곳에 많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령사회에 대처하는 유일한 해답은 일하는 노인이기 때문이다.

사설

역대 사찰 난방비 줄여야 한다

새해부터 원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지난해 배럴당 평균 70달러 후반이었던 국제유가가 최근 20% 이상 상승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이상한파로 유난히 추운 요즘, 많은 사찰들이 난방 연료로 실내등유와 보일러 등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여기저기서 고민이 많다는 소리가 들린다.

난방 효율이 좋지 않은 전통 목조건축이 다수인 사찰로서는 난방비 부담이 이만저만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추우니 난방을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문제는 난방 방식을 바꾸면 그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데 있

다. 신도들이 마음을 다해 시주해 모인 삼보정재가 기름값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은 여기에서 나온다.

다행히 대형사찰을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화목보일러나 태양열, 지열 등 연료를 다양화하고 있다. 하지만 말사 등 작은 사찰에서는 비용문제로 연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일선 사찰에서는 초기 설비비용이 높아 목돈이 든다며 고개를 절로 흔든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사찰에너지 연구팀이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사찰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을 연구 중이다. 연구결과 발표 이전이라도 각 사찰마다 현행에 맞는 에너지 절감의 지혜가 절실하다.

역사에 부응하는 대토론회 되려면

조계종이 1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승가교 육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지속적인 승가교육진흥발차 추진으로 불교중흥을 이룩합시다' 제하의 답화문을 발표하면서 준비됐다.

첫 번째 토론회는 '한국불교의 현재적 성찰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1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발제자로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 스님이 나선다.

이어 2월 23일 '한국불교 교단과 국가'를 주제로 열리는 두 번째 대토론회의 발제자는 백련문화재단이사장 원택 스님이다.

조계종은 토론회를 통해 수립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무기금 및 사찰과 협의해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아끼

지 않을 방침이다.

이 같은 행사는 1980-1990년대 인드라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한경연대 등 재야단체에서 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조계종의 이번 토론회 개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 우선 대토론회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낯설지 않다. 학술세미나와 같은 행사 진행방식도 그렇다.

사전에 주제를 공개해 보다 사이버 공간 등에서 많은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의견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오늘날 불교 현실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

제33대 집행부는 지난해 소통을 화두로 중책을 펼쳐왔다. 수많은 공청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할 때이다.

사부대중 칼럼



정권 전국부구나회 교무국장

'비어 있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자. 찻잔은 왜 쓸모가 있을까? 찻시용인가? 아니다. 하나의 찻잔은 비어 있을 때 우리가 차를 부을 수 있으므로 쓸모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할 때 우리는 마치 찻잔과 같아진다.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나 '바로 지금 여기에' 처럼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문제들에 대해 마음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된다.

사회에서는 돈, 청춘이나 비난과 같은 타인의 평가, 내 행위에 대한 보상 등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렇지만 주의를 관심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왜 '주의와 관심'이 중요한 것일까? 왜냐하면 이들은 양적으로 질적인 면 양쪽 모두에서 개인적이면서도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860억원 어치의 복권

'질적인 면'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게 된 사람과 맺는 깊은 관계를 뜻한다. '양적인 면'은 시간에 관한 것이다. 시간은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자. 여기 지금 864억 원에 해당하는 복권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이 복권을 가질 수 있다. 당첨될 확률은 너무나도 적지만, 누군가는 당첨될 것이다. 바로 내가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자.

매일같이 우리 모두는 푸짐한 상금을 받고 있다. 매일 아침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계좌에 864억원이 들어온다. 하지만 이 복권의 당첨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이 있다.

①이 복권은 하루를 마칠 때까지 쓰지 않은 모든 돈을 회수한다. 다음 날로 이 돈을 가져갈 수는 없다. 자정이 지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또 다른 864억을 받게 된다.

②우리는 이것을 돈으로 바꿔줄 수 없다. 쓸 수만 있을 뿐이다.

③상금은 하루 중 어느 때라도 경고와 함께 혹은 경고 없이 회수될 수 있다.

④상금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과연 나는 이 복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돈을 쓸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루 중에 쓸 수 있는 이 복권에 당첨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의 선물처럼 받는 시간은 매일 8만6400초이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잘 쓰지 못한 시간들은 그대로 보내야 한다. 그냥 하지 못한 일들은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 어제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다.

날마다 내가 쓸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이 채워진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라도 경고와 함께 혹은 경고 없이 멈춰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8만6400초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루의 이 시간들은 과연 돈이나 그 어떤 물질적인 소유물

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즐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간을 비관적인 행동들로 채워 나가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써 보자.

그렇다. 비록 푸른 하늘과 바다는 한계가 정해져 있더라도 인생에서 거의 모든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우리의 중요한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를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 기준에 따른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시간들과 나의 재능들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 여기'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하루 8만6400초의 시간은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들과 의미 있는 관심의 시선들을 나를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 보자.

성지순례!!

2월 21일 출발 미얀마성지순례 1,7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이티오 7일

3월 2일 출발 미얀마성지순례 1,6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이티오 7일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베트]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 하는 종교적 상황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에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 1 사찰에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행사, 제등행사, 불국사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사자 20년 전통의 노후우호 가림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하기척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 주의를 할 점은 무엇인가?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4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6 조상대대 천축, 연축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7 특별천도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및 사용방법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라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글쓴이: 해천법사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글쓴이: 해천법사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